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8주년에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헌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을 이겨내려 현장을 지켜주시고 애써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협회를 창립한 지 58주년이 되었습니다.
58년 전 산업보건 불모지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전합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많은 일을 시도하였고 기반을 다지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도가 축척되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협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 이행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사옥 건립의 첫 삽을 떴습니다.
협회는 본부 건물의 필요 기능 및 전략적 사업 확대를 위해 본부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시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와 인접하는 본부의 탁월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정책 방향 수행 등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산업보건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함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위험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며 협회의 강점은 더욱더 강하게 약점은 서로 보완할 것입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홍보에 업무가 국한되어있던 대외홍보팀을 온라인 홍보로 갈 수 있도록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였습니다. 본부 지하에 방송 스튜디오를 설립하였고 협회에서 나오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산 고도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티핑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우리 현실에 녹아들어 왔고 점점 고도화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58년간 축적된 산업보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간 단순히 누적만 하여왔고 활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전산 고도화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며 더 나아가 질병을 예측하는 단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글로벌 팬데믹과 빨라진 디지털 대전환,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됨에 따라 산업보건 시대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혁신 인재 양성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력 체계는 도처에 만들어진 칸막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재정 여건에서 우리 협회는 시장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산업보건 컨설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협회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58년간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경쟁사가 부러워하고 따라올 수 없는 무수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온 우리 자산이며 핵심경쟁력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산업보건협회 58주년을 축하드리며, 국민도, 노동자도 모두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